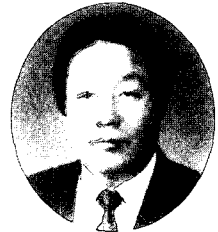


'97환경부 각 실·국의 정책방향

자연보전국의 '97년도 주요정책방향



박 종 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1. 21세기를 향한 진취적 자연정책의 추진

우리는 짧은 산업화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11위의 GDP규모와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였고 작년 12월에는 29번째의 OECD에 가입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삶의 터전인 환경을 희생하여 얻은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발전과정에서 훼손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수질, 대기등 많은 환경분야에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해온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형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은 수질, 대기, 폐기물등 여타 환경보전 노력보다 훨씬 미흡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자연환경은 환경보전정책의 시금석이자 궁극적 목표다. 따라서 수질보전, 대기보전, 폐기물의 적정처리등이 분야별 환경보전이라면 자연환경보전은 환경보전노력의 총체라 하겠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자연환경 관리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연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중요 자연자산의 관리에도 소홀하여 많은 자연자산의 훼손을 초래했으며 현재도 중요 생태계와 생물종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 생태계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생태계 관리의 수동적이며 구태의연하다.
- 생태계보전에 따른 정부·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자원·조직 등 기반여건이 미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환경의 건설을 위해 환경부는 '96년 5월 "진취적 자연정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환경보전 업무의 추진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으며, '97년은 진취적 자연정책의 추진 기반조성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자연환경보전 업무 추진 기본방향>

-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종합적 보전
- 자연과 생태계의 國家資産化 및 건전한 활용에 필요한 토대 구축
- 사람과 자연의 공존 공생 토대를 마련하고 생태계보전과 國土開發을 현명하게 調和
- 생태계보전과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함께 달성하고 현지성있는 자연정책을 추진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통일한반도의 생태적 건전성을 달성

2. '97년도 중점 추진사업

가. 생태계의 자연자산화 기반 구축

생태계 교육·연구공원 조성

강원도는 전체도면적의 44%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지역으로서 타시·도에 비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전이 잘 된 자연이 오히려 도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속에서 생태계연구·교육공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생태계교육·연구공원은 올해 기본설계를 마칠 예정인바, 생태계연구센터, 종합환경과학관, 자연생태계탐방공간, 생태박물관 등으로 구성되고 총면적 100만평 규모로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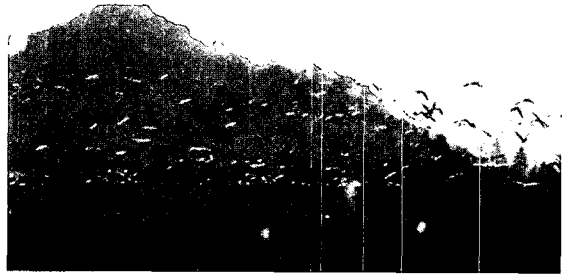
자연발생적으로 유원지화한 전국의 700여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입장료나 쓰레기처리수수료를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자연휴식지를 친자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관광의 육성

한편 자연의 훼손을 수반하는 대규모 관광패턴을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생태관광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철원평야 등 민통선 북방지역의 생태계우수지역을 생태관광지화 하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 연구하고 있는바 이를 확대해 전국적으로 생태관광자원을 조사하고 생태관광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도 한라산의 왕벚꽃나무에 대한 생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왕벚꽃나무는 일본

의 국화이나 그간 자생지가 밝혀지지 않다가 제주도 등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자생지가 발견되고 있어 조사를 통해 동종이 우리나라 기원임이 확인되면 이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철원평야의 두루미

나. 제2차 자연환경전국조사 실시

자연환경전국조사는 국가의 자연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매10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제1차 조사는 '86~'90간 이루어졌으며 올해부터는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 제2차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제2차조사는 1차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 조사를 통한 국토의 현명한 이용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표 1]참조

다. 멸종위기종의 보호대책 추진

지리산반달가슴곰, 섬진강 수달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작년 가을 생존사실이 알려진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보호를 위해 지리산 시암재와 심원계곡 인근에 야생동물이동통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그외에도 야생동물의 이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가드레일 및 U字 측구의 일부를 제거하여 동물이동이 용이하도록 간이이동통로 조성작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한 지리산생태보존회('96년 2개 단체 결성, 1개 단체는 결성중) 활동을 지원하여 일

【표 1】 제1차 조사와 2차조사의 접근방법 비교

	제1차조사('86~'90)	제2차조사('97~2001)
조사 권역	- 행정구역별 구분 - 중요한 생태계의 누락 (도서, 간석지 누락)	-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구분 ◦ 중점조사권역(10개), 우선조사권역(70개), 일반조사 권역(133개) - 간석지 포함
조사단 구성	- 중앙전문가 중심 운영	- 지역전문가 중심 운영 및 지역팀별 활동 - 환경부 생태계조사단 활용
조사 방법	- 전국 모든 지역을 중앙전문 조사단에 의해 조사수행 - 단일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조사	- 우선·중점조사권역 : 현지전문조사단 조사 - 일반조사권역 : 환경부 생태계조사단 - 소권역별로 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동시조사 ※ 조사의 적극성, 신뢰성 및 조사 후 관리의 효율성 제고 기대
기간	- 중·단기간 조사	- 사계절 조사를 통해 조사자료의 완벽성제고

부 제거 및 밀렵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수달(천연기념물 330호)의 먹이사슬 및 서식지 파괴 현황 등을 조사하는 용역을 시행중인바(97. 5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 복원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한편 큰입우렁(배스), 파랑불우렁(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외래종의 도입·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팔당호의 그물 등을 이용해 파랑불우렁 제거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건설로 인해 단절된 지리산 생태계

라.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의 개선

현재 7개지역 91.25km²가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토의 0.1%에 해당하여 IUCN에서 권고하는 10%수준과는 격차가 커서 국내의 많은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생태계보전지역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 지역발전의 위축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 자치단체 등의 지정 반대 움직임에 직면하여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자치단체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협력하는 보전지역 관리틀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설정범위를 적정하게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전지역내에서도 생태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전지역 외곽에 완충지역을 두어 보전시설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두어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방침이다.

마. 중요생태계의 보전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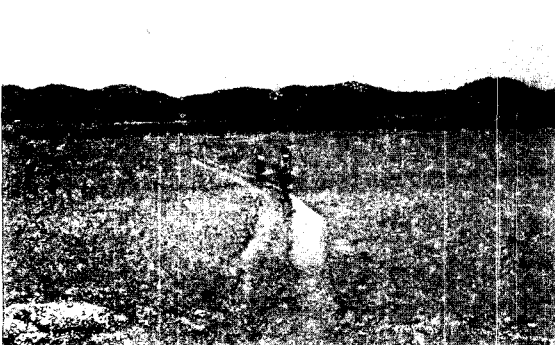
민북지역 생태계 보전

민통선 이북지역은 분단이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생태계가 원형대로 잘 보전된 곳이 많다. 이에 따라 개선되는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제도를 기반으로 민통선 북방의 생태계우수지역중 철원평야, 대암산·두타연, 향로봉산맥에 대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하반기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한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 통일이후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자동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습지 보전

갯벌을 포함하여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전체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우리나라도 세계 5대갯벌의 하나로 간주될 만큼 잘 발달된 서해안갯벌이 있으나 그간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습지를 단순히 버려진 땅 또는 개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96년부터 중점 추진되고 있는 습지의 보전을 위해 올해 상반기중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습지보전법' 제정 및 습지보전에 관한 '람사협약'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2차자연환경전국조사의 일환으로 습지 및 갯벌조사를 우선조사할 예정이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

바. 전국그린네트워크화의 확산 및 지원

그린네트워크화란 국토의 주요 구성요소인 산, 도시, 하천, 습지 등을 단지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 창조하는 적극적 자연정책을 통해 사람과 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건전한 국토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95년 환경부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그린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사례를 수록한 도움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기술, 자연형 하천조성기술, 생태도시 조성기술등 그린네트워크화 추진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도로·하천등)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담은 지침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사. 환경영향평가기능의 내실화

환경영향평가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능강화를 위해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개편하고 환경영향평가실을 설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환경영향평가기법 개발, 평가전문인력의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중대한 환경변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환경영향평가조례의 도입을 유도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하반기중에는 발효될 예정이다.

아. 국제협력의 강화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자연분야의 환경협약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협약에 가입하며 국제자연보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생물종,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게 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생물다양성 협약추진위원회를 3월 중 설치하여 국가전략 작성 및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자문하게 된다. 또 생물다양성 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전파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간에 E-mail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뉴스레터 등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중인 국내 주요 기관·단체를 총괄하는 IUCN 한국위원회를 결성하여 IUCN, 세계자연기금(WWF) 등 국제 자연단체와의 한국측 창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3. 맺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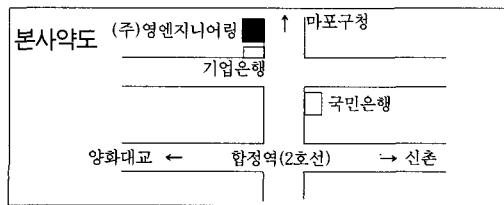
새로운 자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앙정부, 자치단체, 시민, 기업 등 모든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97년도 자연보전국의 주요 사업은 '참여와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이 제·개정되면 진취적 자연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라 하겠다.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갖는 자연보전에 대한 윤리적 의무로서 뿐만 아니라 자연은 21세기 최대의 산업분야가 될 관광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인식을 다함께 공유하면서 자연보전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전 안 내

평소 저희(주)영엔지니어링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측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폐사의 본사 사무실을 아래 장소로 확장 이전하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더욱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 래-

- 1.이전일자: 1997. 2. 2. (일)
- 2.이전장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86-2(양경회관 5층)
- 3.전 화: (02)326-0762(대) FAX: (02)326-0761



그동안의 지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적극적인 품질경영을 하기 위하여 본사를 서울에서 인천공장으로 이전하여 합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하기 장소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래-

- 본사및공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8-2
(남동수출산업공단 127B 3L)
TEL: (032)817-5100(대)
FAX: (032)814-4134/4135
- 서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90-80
TEL: (02)834-5100(대)
FAX: (02)833-8219